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너도 나도 다 돌아다니게 돌아가니 하나도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
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
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도 늘 그
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물질문명이라는 편리함 속에서 살다보니까 금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서도 그 끄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힘이 세어서 돌
아서면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닥쳐오는 시련이나
아니면 죽음과 삶의 길에 도달했을 때, 큰 재료가
있을 때에만 그런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
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문명이 편리하다 보니 여기
에 끄달려져 있는 이런 저희들의 중생심이 과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
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앞에 있
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한 먼 것도 같습니다. 그
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알려주십시요.

▲스님: 이 마음이란 밍고 가깝고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
라도 그렇고 어떠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
어 지도자가 전기줄이러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
하죠. 지도자가 전기줄이러면 전기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주면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죠? 그러나 따라가
는 사람은 밝으니까 따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
에는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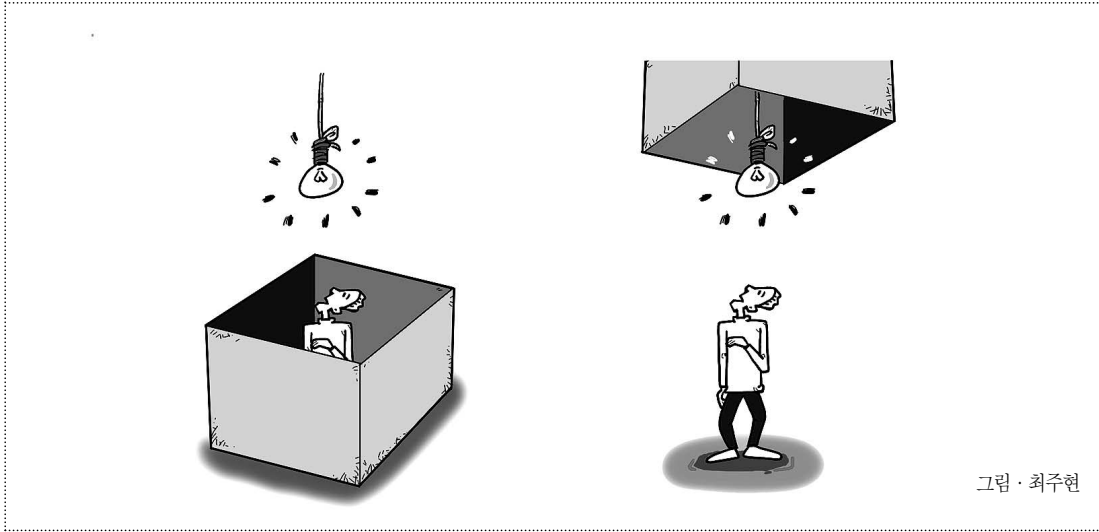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서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러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의학이
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
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
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
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한 것이
없다라고 한 뜻은 어떠한 깨달아 없으니까 했는
가 그것을, 우리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보러 온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

이런 이유가 불으면 전기줄과 전기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켜려면 이유를 불문
에 불이고 전기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그죠? 이
걸 불일까 말까, 이거 불일까 말까 하고 붙입니
까?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붙여서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
면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변소 가고 싶으
면 변소 가고, 하하하.

▲질문자2: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중
에 한 가지 또 여쭙말이 있어서, 대중들께는 상당
히 회송합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 한마
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부분
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달
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
랴,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 깨달
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 해야 된다. 깨달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라도 있지만 깨닫고 난 뒤에 보임을
잘못하면 그건 또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는 이런 큰스님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으로 돼 있습
니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
습니다.

▲스님: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 해야 한다는 것
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건너지도 없다 하
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성 부(있)와 자(이)
가 한데 합쳐지면 (주먹을 서로 붙여 보십시오) 깨
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
지 자기가, 즉 씨를 심어서 씨이 낫을 뿐이지 자란
것은 아닙니다.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
야 합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머리 안 깎은 사
람들이나 입신을 할 때는 무명초를 다 끊어버리
겠습니다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형식적으로만 끊어버렸
지 수행해 나가는 데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

나하나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든 것
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
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짐수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
을 하는 나를 발견하면,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맛을 하지 말고
나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맛으로
들리고, 나로 밀어 넣고 나한테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약이든지 선
이든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
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컴컴하면 딱 불을 붙여서 밝게 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해서 돌아 이런 도리를 두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번째 가서는 돌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나루는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아까 전기줄과 전
기줄을 대어주고 떼어주고 대어주고 떼어주고 하
는 도리를 모른다면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든 것을 나루는데, 즉 아버지가 왔다가 남편이 왔
다가 이렇게 나루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루
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
서 만약에 나루는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
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꺾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 하고 내가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짐수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돌
아나게 돌아가니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돌이 다 맞으니까 돌이 다 돌이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
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
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
과 정신과 돌 아나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
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
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림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하실 분 또 없습니까?

▲질문자3: 스님, 간단하게 무와 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 사람들이 전체가, 무와 유
가 같이 산다는 걸 근래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끼
거든요. 그래 제사라든가 이런 걸 지낼 때 집안 전
체 싸움이 난다거나 할 때에 무의 세계에서 그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숙모님이 추서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
신 이후로 산소를 갔다 오다가 그 이웃집에서 삼
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도
망가고 뒤에서 삼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
고 그러고, 연속 낫을 들고 들어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무의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가 무와 유가 같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
각했거든요. 그래서...

▲스님: 그런데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왜
냐하면 정신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세
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
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
마음이 같이 돼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
를 한순으로서, 천백억화신 자체의 손이 한순이
돼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
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
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
우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
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집
어넣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고 구
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
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쪽 물
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
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
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
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옹도에
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옹도에는 크게 불이 들
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
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기줄에다가
저쪽 전기줄을 붙여주면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도 사이
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
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

을 했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
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끊어서 부스럼을 만들
어서 되묻고 되물어서 오히려 전기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그러
면 외려 불발이 되어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붙었
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심중팔구는 되죠.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찍하게 생각하고 갔으
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들겠지 하고 가린 말입
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
랑이러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너는 이런 업
이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
하고 무슨 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너는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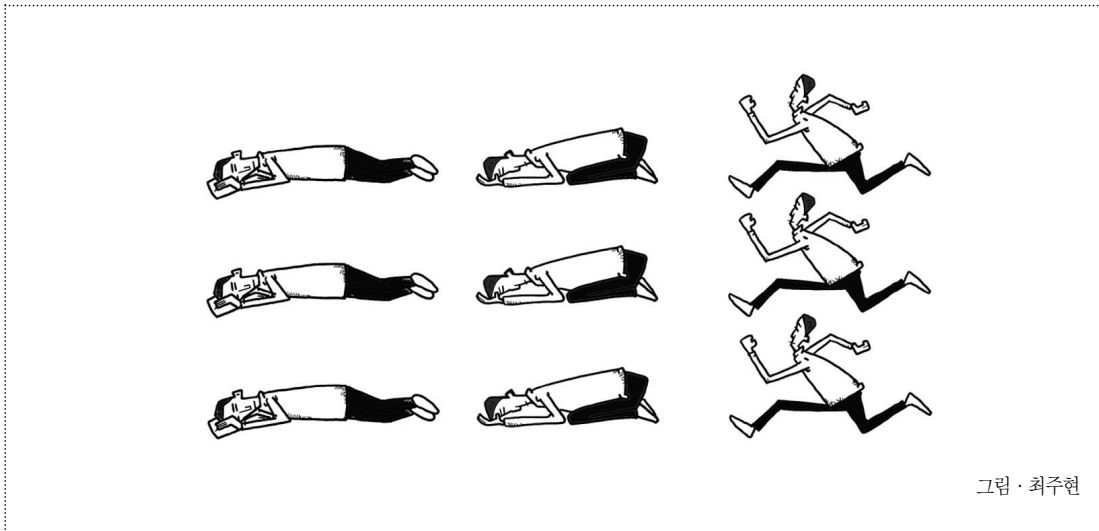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분의 마음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
생이 되고 가라앉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를 지내거나 천도를 시키거나 하더라도
그게 오래 걸렸습디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를 하면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천천히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참할기투
전병 부쳐서 세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아홉 조각, 열두 조각 이렇게 해놓고... 일
체 부처님의 조상이나 중생들의 조상이 따로 없으
니까 모두가 한 조상, 한마음의 조상으로서 일체
영령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쫓
불 쫓고 향 사르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러면 족
합니다.

그래서 영령들이 상을 차려놓으면 상 차려놓았
다는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벌써 깨칩니다. 상 차
려놓았다는 생각을 벌써 영령들이 알거든요. 그
상 차려놓은 것만 알게 된다면 영령들이 어떻게
천도가 됩니까? 먹을 생각만 하겠지. 그러니까 우
주 전체 한 티끌만도 못한 우주를 한꺼번에 거기
다 제시한다면, 우주 삼세를 다 제시한다면, 문을
열어준다면 그런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가 됐는데 왜 또 지느냐, 이러겠
죠? 그거는, 죽어도 마음들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꼭 짊 수도 있고 천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식들이 부모의 묶은 빛의 은혜를 갚
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둘째는 자기가 자식을
기르는데 제도를 하기 위해서도 지낸다 이겁니
다. 그게 아니라면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방편을 쓰더라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방편을 써서 죽은 영령들도 산 사
람들의 영령들도 돌이 아닌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이시며 깨달아 그렇다는 사실을 모두 여러분
이 알았으면 합니다.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

29면에서 계속

▲질문자3: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양쪽 집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제 마음 자리에다 제사를 지내고는 제사 지내러 두 집에 다 안 갑니다. 그냥 내 마음자리에 전생이 있다면...

▲스님: 이거 봐요. 사람이 좀 쫄쫄 뿔뿔이 있어 야지. 바늘을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지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가더라도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큰집에서 그렇게 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서 거기에 모두 응해서 따라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는 영령들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님이 마음이 흉박하고 좋으면 조상님도 좋고, 그런데 그 몸통이가 뭐 잘 낫다고 거기를 안 갑니까? 그놈의 '나'라는 거를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고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마저 빼놓고 슬근슬근 들레방아 돌아가듯 슬근슬근 돌아가십시오.

▲질문자4: 안병하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병원에 늘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 요즘은 눈이 아파가지고 영 앞의 사람이 안 보입니다. 병원에 사는 사신경이 말았다 하는데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 이 눈에 빛과 광명을 주었



그림 · 최주현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여기서서는 관하는 도리를 무조건 가르칩니다. 관하는 도리를 첫째로 알아야 하고, 두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듯이 자기 정신적인 마음이 바로 물질적인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리도 끌고 가고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러도 끌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한 믿을 했으면 한 대로 또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것에 착을 두고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그 자체를 부식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법을 아셔야 합니다. 관하는 법을 열심히 진실하게 알고 행하면 모든 병 증세도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그것도 멀지 않아서 해결이 날 것입니다.

▲질문자5: 저는 주인공 관법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번에도 병이 났는데 주인공을 믿고 관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허허허.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가 들어서서 갈 때도 있고 안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 응. 어떻게 바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거는 가는 게 아니겠어? 싸울 때도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하는 때도 있지?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우리가 싸우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거든. 후퇴를 해야 살지? 후퇴하는 것도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후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후퇴를 하는 것도 법, 전진을 하는 것도 법이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소리가. 그래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질문자6: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천정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52살 난 동생이 있는데 하도 아파서요. 한 7년 전부터 너무나 아파서요, 79세 되신 어머니가 오히려 시중을 드는데 부닥지기만 하면 싸우고요. 병이 안 나아져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스님: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긴 병원이 아니니까.

▲질문자6: 간이 좀 나쁘다 그래요.

▲스님: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90%는 마음에서 병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디가 좀 아프면 바깥으로 그냥 쫓르르 갑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핏도 하고 핏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의식들이 이런 소릴 들으면 날더러 욕을 하겠지만, 대중 웃음)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댕가 내가 얘기했죠. 다리가 썩어서 잘라야 할 텐데 그 마음과 마음이 진것줄을 붙이니까 고만 인체의 마음들이, 필수의 모든 생명 의식들이 전부 작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 들어간 게 금방 내려가서 발목으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를 걸 안 자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머리를 까우똥겨리고 종교를 뿔 믿느냐고 물려잡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속에 들은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이 관법을 알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한마음으로 귀결을 짓고 들로 보지 않아야만이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를,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을 수는 없죠, 이 손가락 하나가,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체의 의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 주장자로 돼 있는데, 손가락처럼 하나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작용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모든 데서 작용을 해줘서 굳어 들어가는 데를 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종류 종류가 따로 따로 있었지만 모두 뻗속에서, 너무 위대하든 위

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는 소립니다.

▲질문자6: 그런데 왜 아픈 환자하고 어머니하고 자꾸 싸움을 하려 합니까?

▲스님: 그것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거니까 거기다 놓는 관법만 아시면 그것은 대번에 안 할 수 있어요.

삼 형제가 사는데 만날 싸우고 몸통이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조금만 해도 '이놈의 새끼야, 네가 더 났니 내가 더 났지. 네가 부모를 더 잘 모시냐? 내가 더 잘 모시지.' 하고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큰머리가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길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 어느 때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보고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서로 싸우면 게 다 없어지고 화목하게 '아이구,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살면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한마음으로 귀결을 짓고 들로 보지 않아야

대하지 않든, 병이 위중하든 간단하든 뻗속의 끝수에서만이 모든 작용을 해주고 서로 대치를 해주고 바껴주고 이라는 데서, 그 의식들이 작용을 해주는 데서 병이 완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뻗쳐 들으면 '아이구! 이런 영락없이 나 죽네.' 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나오니까 이제는 꼬박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식들도 전부 작용을 하 다 말고 이런 영락없이 죽었다고 그러곤 작용을 안 해요.

그러나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심력이라는 것은 빛보다도 더 빨리 더 귀중하게, 아까 진것줄 붙이듯이 (주먹을 서로 붙여 보시는데) 그렇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과거로부터 지은 것이 돼보셔 참 완고한 사람이라면 어찌해 볼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을 때 그릇에 담기지 않아요. 붙어지지 않아요. 전지 줄도 선을 까고 붙여야죠? 까지 않고 그냥 붙일 수가 없죠. 까지 않고 붙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까서 붙이든 아주 붙이 들어오게끔 까가지고 붙여야지 까지도 않고 어떻게 붙여지니까, 그러

말어나 산다고, 또 우리 형제가 삼 형제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하면서 뒤우치면서 화목하게 술을 마시더니, 그때서부터 그렇게 화목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부지간의 화목도 그렇고 모두 자기가 자기라는 그 마음에서 일으키고 '흥, 내가 속여?' 내가 하는 게 옳은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를 하고선 오히려 싸우면 그거는 절대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6: 그리고 딸이 재수를 하는데요, 시험 때만 되면 공부 안돼가지고. 뭐도 아프고 방향을 하는데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아, 그것도 마음의 조작 아닙니까? 자기가 허러니 능력이 닿지 않고 허러니 어떻게 무겁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렇게 돼서 병이 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병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니까 관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하란 말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41회 3000배 철야정진

★날 짜: 10월 30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결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면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10월 30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3000배 수행정진차 판매 (₩10,000)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간의 청소되어 피로회복과 건디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기가 짝 한 기능성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장 소: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 버스: 1116(잠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연결 농암기슭선다원에서 하차 후 SK주유소 옆도로 5분거리 소리산천관법당 법암정자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미되는 안타까운 일로 중단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한 것이 아주 좋은 분들의 태안사 대법당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시어 엄정소결과 소원정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철하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질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법암정자서술 군자법당 양평 소리산 법암정자
☎ 전화문의: 02)456-4994 ☎ 전화문의: 031)771-7745
456-0035 771-6736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어은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도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순 전국 1,000명)

- ☞ 인술된 분비속진, 만성피로
- ☞ 복용 15~20분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없음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안희숙

전원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천하명당-배산임수-시계절 물이 절절 흐르는 곳

사찰부지/연수원/복지관부지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현산 자락에 위치
안성 C·C근처 / 칠장사 진입도로 입구

도로 2차선 점선지 / 접근성이 매우 훌륭함

면적 면적 3,000평~10,000평 (필요한 면적 만큼)

특기

- ◆ 天下明堂 地氣를 찾는분 환영
- ◆ 부지내 지하수가 매우 풍부함
- ◆ 청룡 · 백호 외호가 뛰어나며
- 특히, 백호가 역수(逆水)한 곳
- ◆ 중개인 사절 (실수요자만 직접 면담)

연락처: (주)02-2269-4023 / (09)011-9713-9984

간(肝) 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용담과 바깥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지역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상할 허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지역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집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완겨 9기마니를 달은 뒤 완겨에 물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완숙에 들어온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완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